

名山探訪：德裕山記

金 長 好

산에 오르되, 나는 이 아름다운 산을 나보다 먼저 올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이들의 흔적을 좇으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에 빠진다. 그러던 중 덕유산(1,614m)에 오르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났다. 묘하게도 이 큰 산에 그 흔한 절이 없다시피 하고 또 성터마저 가뭇 없는 것이다. 범위를 넓게 잡아 덕유산국립공원 테두리 안을 다 뒤져도, 절이라곤 이 산 등산로 목을 지켜, 널리 알려진 신대리의 백련사를 비롯한, 적상산의 안국사 또 호국사터, 이 산 서편 안성쪽의 원통사, 동쪽 거창 위천상류의 송계암 그리고는 훨씬 남쪽 남덕유산 아래 영각사 뿐인데, 그나마 이 절들은 모두 그 사우전각(寺宇殿閣)이며 탑파(塔婆)마저 보잘것이 없는 말사 속암(屬庵)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이즈음 번듯한 차림새하고는 달리, 한갓 초암으로 매월당의 부도가 있다 뿐, 그 창건연대마저 확실찮은 백련사를 비롯하여, 고려 충렬왕 3년(서기 1277) 인월(印月)화상이 창건했다지만 신빙성은 약한 그 안국사에, 또 그 옆의 호국사, 그리고 원통사가 모두 충남의 금산 남이면 진락산(進樂山)의 보석사 말사들인데, 그 보석사마저 본디는 31본산의 하나로서 거기 임진왜란때의 승병장(僧兵將)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 대사의 순의비(殉義碑)까지 세워져 있었으나, 범자고(梵字攷)에 보면 폐사가 된지 오래고, 지금 것은 그 이후 재건한 것이라 한다. 경상도의 송계암이나 영각사도 물론 해인사의 말사다. 그 중 연대가 좀 오래다싶은 영각사는 1976년 10월에 내가 가본 바로는, 거기 화엄전에다 부처를 모셨을 뿐, 그나마 스님도 없고, 극락전에 조처

사라는 이름의 속인부부가 거처하는 황폐한 모습이였다.

성터도 그렇다. 덕유산국립공원 영역에 드는 산성이라고는 하나 뿐인 적상산성만 해도, 고려말 최영 장군이 축성한 것으로 1612년 거기 사고(史庫)를 두고, 앞에 적은 안국사, 호국사로 하여금 지키게 한 높이 3m, 길이가 3,000m에 면적이 6만4천평이나 되는 꽤나 규모가 큰 산성이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알듯이 이 언저리 신라, 백제가 각축을 다투던 그 시대의 것이 아님은 물론, 그것은 역시 덕유산 밖인 것이다. 그나마 이 산에 가장 가깝다는 것으로, 거창 웅양의 한기리성(汗基里城), 역시 거창 서상의 육십현고성(六十峴古城)과 방지성(芳池城), 전라도쪽으로 육십령 너머 장수 계내의明德리성(明德里城), 계남의 점곡리성(砧谷里城), 점치고성(砧峙古城), 북쪽 무풍의 무풍고현성(無豐古縣城), 장수의 용계리성(龍溪里城), 그 남쪽의 합미성(合米城), 또 남쪽 산서 봉서의 거녕성(居寧城), 혹은 장수, 성수에 성적산성(聖迹山城)들이 그 모두이지만, 그 모두가 이산 테두리에서는 한참 먼 데 위치한다. 그리고 보면 이 큰 산에 삼국시대 이래의 산성 하나 제대로 없었다는 것에 잠깐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덕유산이 언필칭 신라, 백제의 칸을 지르는 국경지대였음에도, 그 나제통문(羅濟通門)마저 이 산 동쪽자락에서도 한참 멀리 있는 것이다.

이 산에 산사와 산성이 없다는 것, 한국산에서는 유별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산이 자연의

신전(神殿)이요, 또 성채(城砦)라지만, 산도 산나름이지 이렇게 턱없이 커버리면 거기 절도 성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거기 지을 수도 쌓을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마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바로 덕유산이 그런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 혼한 사암이며 성터가 셋은듯 이 산에 엮다시피 한 것을 그 까닭으로 밖에 달리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름부터가 그렇다. ‘덕’도 덕망이니 도덕이니 하는 그 덕이 아니라, 작은 고개를 앓재(阿峴)라 부르는 대신, 큰 고개를 덕재(德峴)라 부르듯이, 덕이 본디 ‘크다’는 뜻의 만주말에서 온 것인 줄 알면, 이산이름은 그만큼 크고 넉넉한 산임을 뜻하는 것이로되, 바로 그 크고 넉넉함이 들어 절도 성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모른다.

그 대신, 이 큰 산 치마폭이 워낙 커서 그랬을까, 남덕유산에서도 한참을 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의 지우천 상류, 기백산의 서쪽 골짜기에 지금 사우는 없이 일주문만 덜렁 서 있는 그 현판에 놀랍게도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 쓰여져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산자락에서 한참을 타 내리는 언저리, 이 산덩치를 쳐다보기만 하며 선비들이 산수를 즐긴 정자들은 심심찮다 그 중에도 가장 이름난 거창쪽, 위천을 거슬러 오르는데 위치한 수승대(搜勝台)며 그 서쪽의 청리정(淸吏亭), 그 보다 하류에 놓인 삼락궁(三樂宮)과 영승서원, 또 안의에서 남덕유산 기슭을 돌아 오르는 육십령 골짜기에 즐비한 동호정(東湖亭), 군자정(君子亭), 거연정(居然亭), 농월정(弄月亭), 그리고 육십령 너머 장계의 백락정(白樂亭)등이 그것이다. 하기야 산중에도 그런 흔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적상산의 안렴대(按簾台)며 삼공리 드는 길의 수성대(水成台), 백련사 가까이 또 안심대(安心台), 이속대(離俗台) 등이 있지만, 그 중 안렴대는 산성적자들의 쉼터요, 그 밖에

것들도 모두 골짜기 경관을 즐기는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다. 봉우리가 높아 골이 깊다지만, 이 산은 그 봉우리가 워낙 크고 높아 골짜기에서만 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산은 흔히 소백산맥이 지리산으로 뻗어 내리는 어간에 일구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에는 오히려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한줄기로서 꼽고 있다. 한반도를 동서로 구분하는 그 분수령으로 본 것이다. 거기다가 또 신기한 것은 이 산이 뻗어나가 거기 한반도 남반부의 가장 큰 산덩어리(山塊)를 이루는 지리산이 동서로 뻗었는데, 이 산은 오히려 그것을 위에서 깔고 누르듯 남북으로 내리쬐리고 있는 것이니, 말하자면 이산의 무게가 들어 지리산의 받침이 튼튼한 것이 되고, 또 거꾸로 보면 그 지리산의 안정감은 오히려 이 산의 중압으로 빚어진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그로써 또 한반도 전체 산지의 구도가 비로소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한줄기

따라서 줄기를 살피면서 한국산을 두루 머리속에 그려보기 위해서는, 지리산과 한가지로 덕유산도 역시 종주를 접어두고 제 맛을 찾을 수는 없다. 주능선 길이만 해도 20km, 그 오르내리는 산자락까지를 합치면 거기 10km는 더 보태어야 할 이 산 종주는, 그러나 그리 호락한 것은 아니다. 나야 일찍이 그것도 가을철이었기 망정이지, 이 산 앞음새가 시켜 불러들이는 겨울철 풍설이며 적설량은 영동의 여느 산들의 그것을 뺄만한 것이다. 북에서 남으로 훑어내리기가 쉬울지 모르나, 나는 안의에서 동행과 합류하기 위하여 거꾸로 이 산을 더터올랐다. 늦은 시간에 까막재를 감돌아 올라 영각사에서 우선 하룻밤을 묵고 일찌감치 길을 나섰으나, 하봉을 지나 영각재 너머 중봉에서 이미 맥이 풀리기 시작했다. 쨍쨍한 가을햇살이 뜨겁게 내려죄기도 했거니와, 은

근하게 참 꾸준하게 뱀꼬리처럼 구불거려오르는 등성이길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청옥산의 학등이나 노고단의 코재도 비할 바가 아니라 싶었다. 이즈음 영각사 아래 새로 지어졌다는 덕유교육원에서 골짜기를 타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그랬던 것이다. 중봉에서는 더구나 가파르기까지 하여 남덕유의 정수리를 이마에 이고서도 허덕거린다. 여기에도 이즈음은 쇠사다리가 가설되었다니, 글썽 그때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 대신 남덕유산(1,507.6m)의 정상에서 내다보는 조망은 그만큼 또 값졌다. 북으로 평균고도 1,300m를 밑돌지 않는 높이를 유지하며 쪽 구불거리며 나우리치는 이 산 연봉의 장관은 이제부터 내가 발아래 할 셈치고, 거기서 남으로 아득히 갈매빛으로 떠올라보이는 지리의 연봉은 더구나 잊을 수가 없다. 발치아래 월봉산(1,288m)과 금원산(1,352.5m), 기백산(1,330.8m)은 이웃처럼 가깝지만, 동으로 가야산(1,430m)이 깃발처럼 나부끼고, 서쪽으로는 진안의 마이산(673m)이 야트막하게 그 낮익은 말귀를 쫓긋거리고 있다.

남덕유산 정상에서의 조망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덕유산 종주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일단 월성재로 넘어서기까지는 편한데, 머리 위 샷갓봉(1,400m)까지가 또 가파르다. 그 샷갓재 아래 샘물은 그래서 더욱 맛이 난다. 게다가 여기서는 동으로 거창 황점골로, 그리고 서로는 안성장터로 내리는 길이 뚫려 있는지라. 이런 에스케이프 루트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꾸러온 김밥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샷갓재에서 무룡산(1,491.9m)까지는 그나마 마음을 다잡아서 그랬을까, 지루한 오르막인데도 견딜 만하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벌써 대덕유의 그 주능선 절반지점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

는 이미 끄떡끄떡 서쪽으로 기우는데, 거기서는 얼마 안가서 저절로 입가에서 휘파람이 새어나도록 그 이름도 따뜻한 동엽령(1,328m)에 이른다. 겨울잎 영마루, 누가 붙인 이름인지 사뭇 정이 쏠린다.

조금 이르다싶지만 그 이름에 끌리어 여기서 하룻밤을 쉬기로 한다. 천막을 치고 산죽속에 숨은 샘에서 물을 길고 하면서, 나는 지도를 펴들고 거창쪽 병기실과 안성장터쪽 아득한 골짜기를 번갈아가며 살핀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도상에 몇점 까맣게 찍힌 마을들이 둘러친 산속에 갇혀 그렇게 아늑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언젠가는 그 쪽으로도 들어서봐야지, 그때는 그렇게 그 일이 쉬울 것도 싶었는데, 사실 고백하노니, 나는 이 글을 쓰는 이때까지도 거기를 찾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저버린 골짜기가 아니다. 내 속에 숨겨둔 골짜기다 하면서도, 역시 로버트 프로스트의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이라는 시의 그 ‘그것이 내 운명의 갈림길’이 시키고 있는 것인지나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도 이따금 고개를 쳐든다.

이튿날 동트기 전 천막을 개고, 간밤에 남겨둔 코펠바닥에 붙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 끓여 훌훌 마시고는, 이내 길을 나선다. 이 언저리만큼 이 산 종주산성에 마음 편한데가 달리 있을 성싶지 않다. 아침이슬이 내린 풀밭을 토닥거리며 서쪽으로 칠연폭포로 내리는 목을 지내고, 1,312m봉을 넘어서면서 흡사 지리산의 세석평전같은 광활한 덕유평전이 벌어진다. 넓이는 세석쪽보다 덜하지만 여기에는 그 세석의 돌무더기들이 간데 없는 대신, 그저 활짝 트인 초원이다. 이 언저리 5월달무렵에는 원추리가 온산을 덮는다지만 그 원추리 아니고서도 그 넓은 녹색의 초원이 들어 마음은 오히려 융단위에 드러누는 느낌이다.

덕유평전의 융단

거기서부터 경상남도와는 온전히 하직하고, 이제부터는 전라북도의 땅만 밟게 된다. 얼마 안가 북덕유의 중봉(1,594.3m). 지친 탓일까, 여기서는 동쪽으로 난 백련사로 내려서는 길에 자꾸 눈이 가는데, 코앞에 정상을 두고 그럴 수는 없다. 그 대신 마지막 힘을 채기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덕유산상의 향연을 벌린다. 한국의 가을날씨 하나는 누구나가 칭송하는 것이지만, 1,600m 덕유산상에서 쳐다보는 가을하늘을 글자 그대로 끝간 데가 없다. 발아래 거뭇거뭇 갈매빛으로 너울거리는 산줄기도 여기만 쳐다보는 시늉이다.

그러나, 아아, 대덕유, 지금은 거기 ‘산악인의 집’이란 대피소도 썼지만, 그때만 해도 켈하게 버려진 이승가늬의 둔덕, 그 정수리에 올라서서 부르는 쾌재는 내가 밟은 산줄기를 메아리처럼 감돈다. 누가 일러 이 산을 한반도의 속고갱이라 했던가, 아랫배에 힘을 모아 질러대는 소리는 이미 소리가 아니라 실실이 흩어지는 구름조각이다.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서도 하기야, 칠봉(1,161.2m)을 거쳐 이 산 종주를 완결할 수도 있다, 한술 더 뜨면 또 북으로 두문산(1,051m)을 넘어 북서쪽 단지봉(768.5m)과 적상산(1,034m)으로 치오를 수도 있다. 거기 적상산에는 바위가 용립하여 이 산 육산만 밟아 느슨해진 팔다리의 힘줄에 꼬챙이를 심어주리라. 그러나 그 산은 역시 이름자대로 가을철 단풍이 붉은 치마를 두른듯 할 때 그때 찾아가리라. 그렇다, 이 썸에서 자만은 거두어야 한다.

백련사에서부터 설천까지 70여리, 25km에 걸치는 이름자대로의 구절양장(九折羊腸), 무주구천동은 세상이 다 아는 그 33경으로 더욱 이름이 난 골짜기다. 삼공리를 중심으로 설천까지의 하류를 하구천동이라 하고 그 상류쪽을 상구천동이라 한다. 사실 이 길은 죽려장 빗기 짙고 한가하게 걸으며 즐겨야 했었다. 바쁜 사람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를 말았어야

했다. 그후로 두어차례 여기를 찾아간 인상은 그 바쁜 사람들 등살로 날이 갈수록 추해갔다. 1969년 국민관광단지가 되고 이어 '75년 2월 1일자로 둘레 219평방킬로에 걸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길이 넓혀지고 호텔이 들어서고 식당이 늘어나고 하더니, 마침내 33경은 그 그윽함을 거두어 산상으로 쫓겨가고, 삼공리아래로는 더구나 구정물 도랑이 되고 말았다. 그 아래 세심대(洗心台)는, 마치 가야산의 농산정(籠山亭)이 산속에 갇혔다가 하루아침에 산밖으로 쫓겨난 축산정(逐山亭)꼴이 되었듯이, 이제는 마음을 씻기는커녕 걸레도 행귀내지 못할 하수도가 되고 말았다. 뿐인가 주차장위로는 분명히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봄비는 인파를 헤치고 보란듯이 버젓이 오르내리는 차가 심심찮다.

알고 보면 사실, 제 발로 오르내리는 이는 산을 더럽히는 법이 없는데, 무엇이 바쁜지 목표만을 쫓아 줄달음치는 사람들이 들어 골짜기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길목의 높이며 반석, 둘레경관이 바로 그 목표파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속 알갱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양과겹질을 한겹씩 끝까지 다 벗겨버리고 난 뒤, 그때 맨손을 들고 멍청해 하는 원숭이같이, 끝내는 허망만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버린 그 허망의 껍질들로 제가 다치고, 또 무주구천동으로 하여금 오늘 이 모습으로 변모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 필자 소개

부산출생·대한산악연맹이사, '77에베레스트 원정 훈련대 대장등을 역임한 골수 山岳人.

詩人이며 文筆家

現在 한국文人협회 이사

국제 PEN클럽 한국본부이사

동국대학교 교수

저서 :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1978)

손의 자유, 발의자유, 정신의자유(1989)